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 배포일 : 2016년 12월 13일(화)
- 담당자 : 남정수(010-6878-3064), 박진(010-6268-0136)
- 홈페이지: bisang2016.net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 논평

### 여야 3당의 여야정 협의체 운영,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퇴진행동 논평 야당은 민의와는 무관한 원칙없는 정략적 타협 중단하라. - 촛불민심 수렴 없는 개헌특위 - 여야정협의회 즉각 중단

어제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이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만나 탄핵 이후 정국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국회 개헌특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퇴진행동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헌정파괴 사건은 황교안 국무총리와는 무관한 일인가? K스포츠와 미르 모금을 황교안 국무총리는 몰랐단 말인가? 황교안 총리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 묵과 또는 동조했다는 공범자일 뿐이다.

퇴진행동은 무능 또는 공범자인 황교안 총리에게 탄핵이후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때문에 권한대행으로 그를 인정할 수 없다. 탄핵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외쳐졌던 ‘황교안 당장사퇴’ 요구는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것이 촛불의 민심이고 국민의 바람이다.

그런데 야권이 나서서 황교안 총리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개헌특위 구성에도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시점에서의 개헌은 박근혜 즉각퇴진, 적폐청산 등 촛불의 절박한 요구를 정치권이 자신의 이해득실에 맞춰 왜곡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즐기치게 퇴진 촛불 가운데에서도 개헌을 주장했던 이유가 이런 것 아니었는가!

특히 새누리당이 개헌특위의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국정농단 헌정파괴의 부역자인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기에 더욱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촛불의 의해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6년 12월 13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